

은 멀어져 버리긴 하였겠지만 섬세한 線의 리듬은 逸品이다. 정적인 나무와 꽃들의 배경 속에 동적인 오리가 물결을 타고 흐르게 한 入絲수법은 可히 獨步라 할 만하다. 香奩가운데 이같이 운치있는 묘사를 한 것도 없었지만 象嵌靑磁에서나 나타나지는 좀체다. 비슷한 풍경이 묘사된 것은 全鑿彌氏藏 靑磁象嵌柳竹蓮蘆鴛鴦文淨瓶<sup>②</sup>이 있고 좀 다른 國博藏 素燒陰刻柳蓮文瓶 등이 있다.

가령 오리를 보자. 曲線의 동적 묘사를 최대한으로 살려낸 표현력에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두마리가 다 잔잔한 물결을 헤치고 가는데 문득 앞서가던 오리는 머리를 돌려 뒤 따르는 오리와 마주보게 하는 수법, 크고 적게 그려 遠近法을 살린 점 등은 非凡한 솜씨라는 말이다.

오리의 좌우 양쪽에는 蓮과 버들의 두 무더기가 그려있다. 오른쪽 蓮은 극히 섬세하게 묘사한 물결 위에 滿開한 蓮꽃 갖핀 것 그리고 봉오리들을 실감나게 묘사하였다. 왼쪽 무더기는 물가의 완만한 둔덕에 버드나무를 중심하여 두 그루의 대나무와 풀을 그린 것이다. 휘영청 굽은 나무에 죽죽 내려뜨린 가지들은 걸작 東洋畫의 그것이며 양쪽 대나무의 측삭 그은 線은 이 그림을 한결 더 조화롭게 한다.

蓮잎에는 다시 버드나무와 대나무 풀의 一群이 같은 수법으로 표현되었으며 그 옆도 역시 蓮을 중심으로 갈대와 풀을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오리를 중심으로 蓮群, 柳群이 엮갈려 배치된 셈이다.

이 외에 거의 例外없이 表現된 梵字나 細, 太線 등의 文樣이 없는 것은 이것만의 특징인데 역시 銀入絲香奩樣式에서 벗어난 표현이다.

X X X

銘文에 年代가 없는 이상 이 香奩의 제작년대를 확실히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몇가지 이유로 해서 十三세기 즈음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로 모양과 비올때문이다. 胴體와 臺가 잘 균형을 이루어 초기 銀入絲香奩 특히 表忠寺香奩와 거의 유사하며 비올도 全高와 上徑이 거의 一대이며, 上徑과 下徑이 三대二인 十二, 三세기 香奩비율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다만 略化수법이 곳곳에 보이고 있어 그렇게 올라가는 作

品은 아닐 것 같다.

두째로 入絲手法이 그 당시의 것과 같다.

세째로 文樣이 十二, 三세기 高麗靑磁에 흔히 나타나고 있는 표현이 그때문이다. 특히 十二세기 作으로 보고 있는 全鑿彌氏藏 象嵌淨瓶과는 그 配置法이 거의 같은데 이와같은 初期象嵌文樣을 範本하여 銀入絲하였으리라 생각된다.

麗末鮮初에 나타나던 같은 표현의 투박한 文樣에 비하면 훨씬 세련되었고 略化될 수법이긴 하지만 모양, 비올 등으로 보아 十三세기 경의 작품이 아닐까 생각된다.

(實側值) 全高二九cm 上徑二七·六cm 下徑一九·二cm 字徑〇·六cm)

註

① 黃壽永: 高麗靑銅銀入絲香奩의 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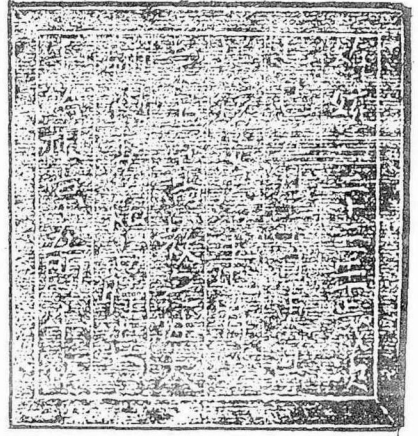
② Kim and Kim, Treasure of Korean Art p. 49.

### 資料

統和와 正德銘의 塔誌石

黃 壽 永

이 곳에 소개하려는 塔誌二枚는 今年 六月十五日 서울 李秉珪氏가 東國大博物館에 寄贈한 것이다. 發見經緯에 대하여서는 아직껏 알 수 없으나 아마도 古代石塔內에서 舍利具와 함께 安置되어 오던 것이 近年에 遊離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同一塔의 舍利方孔에서 동시에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데 李氏가 一九六七年 九月頃 入手한 即後에 필자에게 그 銘記만을 알려준 바 있어서 필자는 이것을 考古美術資料 第十五輯「續金石遺文」(一九六七年 四月刊)에 收錄한 바 있었다. (同書



統和二十三年銘塔誌石(前面)第六號

등에 錯誤가 있었으므로 이곳에서 訂正코자 한다.

二

이 塔誌 兩枚는 크기가 同一한 蠟石板 또는 靑石板으로서 新羅의 塔誌石이 대개 蠟石으로서 多面體를 이루고 後代의 重修追銘도 同一石의 側面 또는 背面을 利用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例如 永泰二年·淳和四年銘品①—東國大博所藏 또는 全南 長興 寶林寺三層石塔發見 咸通十一年·成化十四年銘品②—寶林寺 所藏)

그리하여 이 고리塔誌는 자기 前後兩面을 利用하여 輪廓과 行間野線을 마련하고 楷書體로 陰刻되어 있는 바 兩枚는 모두 重修時에 造成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銘文中에 寺名이나 所在地를 말하는 文字가 전혀 아니 보이고 있으며 다만 「東邊塔」이라 하였을 뿐이다.

(其一)

統和二十三年銘品(黑色蠟石質 板長一一·六cm×橫一一·五cm 厚〇·五cm 兩面各六行 各行六一九字 字徑一·五cm 人名小字徑〇·八cm)

(前面)

維統和二十三年歲次

乙巳五月二十日東邊

塔依落治建時

二十九、東邊塔誌石)

그러나 現品을 처음 對한 것은 今年 東國大로 옮긴 뒤였으므로 그 形態나 書體 등에 대하여서는 모두 未詳이라고 上記冊에 註記하였었으며 또 이번에 그 內容을 現品과 對校한 바 塔名이나 行字數

寺主嵩教芝性大師昶秀和尚時造一千佛祖堂五間千佛

(後面)

堂九間助成徒衆第一坐契元院主光慶典坐祐暹史粹相大唯乃利聰副唯乃緣旁頭利善千佛太近崇寺三百餘人

(其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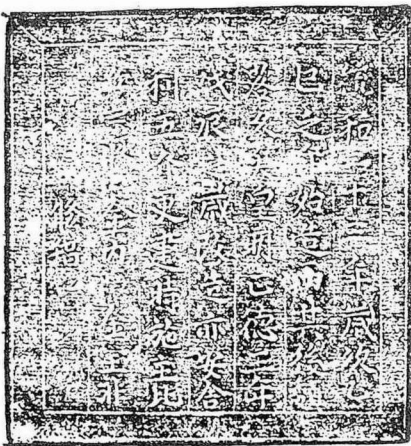
正德三年銘品(黑色靑石板 長一一·九cm×橫一一·三cm 厚〇·八cm 兩面各七行 前面 各行九字 字徑一·〇cm)

(前面)

統和二十三年歲次乙巳之年始造而其後頽落久矣皇明正德三年戊辰之歲改造亦安舍利五介更建時施主比丘宗修金內隱金玉非修短

(後面)

石手省雲 大通克連 達能 信玉 罔連 供養主學燈 道安 化主 戒空 時持社主坦和 時見同修徒衆二百余人 正德三年戊辰五月十六日 重建記



正德三年銘 塔誌石(後面)第八號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兩枚의 塔誌는 각기 統和二十三年乙巳(遼聖宗二十三年 高麗穆宗八年 서기 一〇〇五年)과 正德三年戊辰(明武宗三年 朝鮮中宗三年 서기 一五〇八年)에 五百餘年の 年差를 두고 「東邊塔」의 重建事實과 關係僧俗名을 記刻納塔한 것이 틀림 없으며 正德銘品은 정확하게 統和銘板의 크기와 體裁를 模한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其二) 統和板에서 「佞(倒?)」 落治建」이라 하였으므로 이 塔의 創建年은 이보다 溯上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其二) 正德板에서 이 統和乙巳年을 初行에 옮기면서 「始造而後額落久矣」라 하여서 統和二十三年에 初建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서는 (其一) 統和板의 記錄을 正當한 것으로 보아서 兩枚가 모두 「治建」이나 「更建」 또는 「重建」된 사실을 傳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統和治建時에는 그 외에 一千佛의 造成과 祖堂 千佛堂 각 五間과 九間의 建立이 있었던 事實도 알 수 있는데 당시의 寺主 以外에 助成徒衆 三百餘人中 第一坐史 大唯乃 副唯乃 千佛大匠 등의 職名과 僧名을 알 수 있는 것도 奇蹟하다. 또 正德板에서는 舍利五介의 奉安 사실과 施主 뿐 아니라 石手、供養主 등 徒衆 二百餘人의 參與를 傳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서 미루어 石造로 보이는 이 塔誌의 收藏塔은 그 規模가 相當한 크기의 것으로서 初建年代도 羅末麗初까지 推定할 수 있을 것이다. 統和年代에 이르러 倒落된 事由는 알 수 없으나 治建을 要하던 原因이 天變地異가 아니었다면 그로부터 初建까지엔 적어도 一世紀內외의 年數를 算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推定보다는 이들 塔誌의 出世가 불과 數年前임에 비추어 그 經緯와 所在地를 더듬어 原塔을 찾아내어야 될 것이다. 그 같은 努力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年代를 推定할 수 있는 확실한 石塔例를 찾을 수가 있을 때문이다.

現存石塔中 그 自體에 記銘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드물다 하더라도 羅麗의 塔誌例가 漸增되고 있으며 또 寺刹史料의 檢討에서 造塔年代를 推定할 수 있는 遺構도 더욱 밝혀질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塔誌兩枚는 重要한 金石文 資料일 뿐 아니라 塔婆研究를 위하여도 더욱 所重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八月六日)

註  
 ① 拙稿：新羅塔誌石과 舍利壺(美術資料)第十輯 一九六七年二月刊 續金石遺文二十、永泰二年塔誌  
 ② 「金石遺文」十七、八寶林寺石塔誌(南、北)

瑞山 龍賢里出土 金銅如來立像

李 殷 昌

一九六七年 가을에 忠淸南道 瑞山郡 雲山面 龍賢里 田一六番地에서 張有聲、鄭張鈺 兩氏에 의하여 金銅如來立像이 出土되었는데 今年 六月에 再收拾되었기에 紹介한다. (出土地點은 前號(九卷七號)에 소개한 百濟如來立像의 發見地點에서 東北 約十m)。

金銅如來立像은 臺座上에 正面直立한 小像이다. 銅造鍍金像이었으나 金色이 大部分 脫落되어 녹이 슬었다. 頭髮은 磨損으로 螺髮이었는데 또 素髮이었는데 仔細히 알 수 없고 肉髻가 높고 두렷하여 古格을 보인다. 耳朵는 長楕形으로 어깨 가까이 드리우고 있는데 右耳는 破損되었다. 顔面은 둥근 容貌다. 半月形의 眉線을 그리고 兩眼은 半開眼으로 柔和한 表情이 들어나고 있다. 鼻部와 口邊은 破損되었으나 그 輪郭으로 짐작되는 바 當時의

